

보도 일시	2022. 5. 27.(금) 16:00	배포 일시	2022. 5. 27.(금) 16: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책임자	과장 김미라 (044-203-2731)
		담당자	사무관 서연경 (044-203-2740)

문체부 장관, 국립예술단체 등 현장 찾아 예술계 적극 지원 약속

- 일류국가를 위한 문화번영, 문화예술의 힘 강조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취임 이후 문화예술계 첫 행보로 5월 27일(금) 오전 10시,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에서 국립예술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형식 국립오페라단장과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윤의중 국립합창단장, 이유리 서울예술단장, 최정숙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 김희철 국립정동극장 대표, 남정호 국립현대무용단장, 김광보 국립극단장 등이 참석했다. 박보균 장관과 참석자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계 현황을 살펴보고 일상 회복을 위한 국립예술단체의 역할과 업무를 논의했다.

박보균 장관은 일류국가를 위한 문화번영, 문화의 힘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중문화의 세계화 이전에 순수예술 분야에서의 성취가 있었다. 그 산증인이 강수진 국립발레단 단장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예술인의 놀라운 기량, 미적 감수성, 문화의 절정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존경심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하며, ‘누구나 공정하고 차별 없는 문화’를 누리고 나누기 위해 국립예술단체와 제가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국립예술단체장들은 코로나로 인한 예술계 어려움 등을 공유했는데 박 장관은 “‘국립’은 신뢰감, 명품, 시대 선도, 공공성과 대중성으로 국민들

에게 인식되어 왔다.”라며,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문체부는 예술 단체들의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간담회 후 국립발레단과 6월 <시칠리아섬의 저녁기도> 공연을 앞둔 오페라단 등의 연습공간과 현장을 꼼꼼히 살피면서 단원들을 격려했다. 이 과정에서 열악한 연습실 휴게공간을 직접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현장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